



2024 아르코미술관 × 온큐레이팅 협력 주제기획전

# 《인투 더 리듬: 스코어로부터 접촉지대로》

엘리자베스 에베를레 × 루이즈더우먼

〈간격을 조심하세요!〉 리서치 결과자료집



2024 ARKO Art Center × OnCurating International Collaborative Exhibition

# *Into the Rhythm: From Score to Contact Zone*

**Elisabeth Eberle × Louise the Women**

〈MIND THE GAP!〉 Research Workshop

## **일러두기**

1. 이 자료의 저작권은 각 장의 작성자에게 있으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변형을 금지합니다.
2. 결과집에 실린 이미지는 작성자가 인용한 자료로, QR 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3. 서체는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무료배포하는 KoPub 돋움체 bold 및 KoPub 돋움체 light 를 활용하였습니다.



## 차 례

|   |     |    |
|---|-----|----|
| 소개  |     | 03 |
| 국내 주요 미술대학 성비와 예술인 성비 비교 분석                               | 머피염 | 04 |
| 예술기술 융합 분야의 성비 분석   | 박선미 | 07 |
| 역사에 기록할 만한 여성 작가 리서치                                      | 박소현 | 09 |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집에 기록할 만한 여성 시각 예술가 리서치                       | 박해솔 | 11 |
| 국내에서 개최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여성 예술감독 선임 비율                       | 박수정 | 13 |
|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거나, 기록되지 못한 여성 예술인 리서치                         | 백선주 | 15 |
| 성별에 따른 작가들의 소득 분석   | 설고은 | 16 |
|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성비와 변화 양상 리서치                                | 송윤지 | 17 |
| 국립현대미술관 조각·설치 소장품 작가 성비 리서치 (제작연도 기준)                     | 안진선 | 18 |
| 한국의 여성 중견, 원로작가 리서치                                       | 우올로 | 19 |
| 역사에 기록할 만한 여성 작가 리서치                                      | 원나래 | 21 |
| 주요 미술관 역대 관장 조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 윤여진 | 23 |
| 만 34세 이후 여성 작가들 (진입 이후 지속)                                | 이시마 | 25 |
| 시기별 주요 미술관 개인전 성비   | 임유정 | 26 |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2024, 2023 단체전 중심 여자 남자 참여 작가 비율 리서치     | 정 원 | 28 |
| 여성 신진작가들이 중진작가로 자리잡기 어려운 이유                               | 최희정 | 31 |
| 활동을 중단한 여성 작가에 관한 리서치_유디트 레이스터(Judith Leyster, 1606-1660) | 하다원 | 32 |



## 소 개

### 엘리자베스 에베를레 × 루이즈더우먼, <간격을 조심하세요!>

이 결과자료집은 2024 아르코미술관 × 온큐레이팅 협력 주제기획전 《인투 더 리듬: 스코어로부터 접촉지대로》의 워크숍 주간에 열린 엘리자베스 에베를레의 리서치 워크숍 <간격을 조심하세요!>의 자료 모음이다.

엘리자베스 에베를레는 드로잉, 영상, 조각을 통해 자연과 인공의 교차를 다룬다. 최근 몇 년간 작가는 예술계 내 여성 작가들의 재현에 관한 아카이브를 구축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연계 리서치 워크숍인 <간격을 조심하세요!>에서 작가는 스위스 취리히에 기반을 둔 익명의 예술가 집단이자 활동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가상의 인물인 '홀다 츠빙글리'(Hulda Zwingli)의 방법론을 차용해 사회와 예술계에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을 가시화한다. 워크숍에서는 면밀한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젠더 불평등에 목소리를 내는 홀다 츠빙글리의 전략을 참고하여 국내 미술계 및 제도를 분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여성 예술인 네트워크 '루이즈더우먼'(Louise the Women)의 구성원들과 협력으로 진행되며, 한국의 상황에서 페미니즘 관점과 실천이 확산, 공유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일시 : 2024년 9월 28일(토), 13:00-16:00 (3시간)

장소 : 아르코미술관 공간열림

진행 : 엘리자베스 에베를레(참여작가)

협력 : 루이즈더우먼

김소정, 머피염, 박선미, 박소현, 박해솔, 박수정, 백선주, 설고은, 송윤지, 안진선, 우올로, 원나래,

윤여진, 이시마, 임유정, 정원, 최희정, 하다원



## 국내 주요 미술대학 성비와 예술인 성비 비교 분석

머피엠

- 미대 졸업 후 데뷔하는 예술인 성비 분석
- 매체별 성비 격차 관련 자료 리서치

| 국내 주요 미술대학 성비 <sup>1</sup> |           |       |       |      |
|----------------------------|-----------|-------|-------|------|
| 학교                         | 전공        | 여 비율  | 남 비율  | 학생 수 |
| 홍익대 서울                     | 회화과       | 87.5% | 12.5% | 264  |
|                            | 예술학과      | 75.4% | 24.6% | 183  |
|                            | 자율전공(미술대) | 81.6% | 18.4% | 163  |
|                            | 조소과       | 72.3% | 27.7% | 130  |
|                            | 도예/유리과    | 96.1% | 3.9%  | 102  |
| 건국대 서울                     | 현대미술학과    | 88.5% | 11.5% | 191  |
| 건국대 글로벌                    | 조형예술학과    | 81.7% | 18.3% | 257  |
| 단국대 죽전                     | 도예과       | 72%   | 28%   | 164  |
| 단국대 천안                     | 미술학부      | 79.1% | 20.9% | 608  |
| 한성대                        | 동양화전공     | 81.8% | 18.2% | 66   |
|                            | 서양화전공     | 78.5% | 21.5% | 65   |
| 중앙대 안성                     | 미술학부 조소   | 62.6% | 37.4% | 139  |
| 경희대                        | 미술학부      | 84.5% | 15.5% | 355  |

제작: 머피엠

국내 주요 미술대학 성비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를 참고하면, 분야가 통합되어 정확한 통계로 보기 힘들지만, 예술인의 성별 분포가 미대재학생의 성비에 비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의 격차가 비교적 좁아진 걸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현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sup>1</sup> 미대입시정보, [미대 남녀 성비]전국 주요 미술대학 학과별 성비 남녀비율-1편: 홍대 건대 단대 가천대 삼육대 한성대 경기대 편, <https://midae-ipsi.com/infor/?bmode=view&idx=21320747>



## 「기념비적 대표 작가 43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sup>2</sup>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작가 발굴 노력의 30년 역사를 정리하는 뜻깊은 전시회에 여성 작가가 고작 3명, 전체의 약 7%에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여성 미술가들을 발굴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이번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이추영 학예연구사는 전시 작품 선정 과정에서 “작가에 대한 미술사적 평가, 작가의 역량, 전시실의 공간”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최근작이었던 《신호탄》, 《박하사탕》 전과 겹치는 작가를 제외하다 보니 여성 작가의 비율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시를 기획하면서 작가의 성별을 따로 생각해본 일은 없지만 미술대학에는 여학생이 많은 데 비해 실제로 전업 작가로 작업을 지속하는 여성의 수가 적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sup>3</sup>

### 여성 작가들의 작품은 왜 여전히 남성 작가들의 작품보다 저평가되고 있는가?

#### Why Is Work by Female Artists Still Valued Less Than Work by Male Artists?<sup>4</sup>

“이러한 공급자 측 관점을 미술계에 적용해 보면, 처음에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아트마켓 2019』(Art Market 2019)보고서에서 언급되듯이,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예술을 전공한다. 그러나 직업 특성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여성 작가들이 남성보다 수입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매체, 크기, 스타일 또는 주제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예술 작품을 제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바우하우스(Bauhaus) 설립자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가 여성은 입체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 여성과 남성의 타고난 능력과 선호도에 대한 근거 없고 잘못된 주장은 성별에 따라 사람들의 삶을 강력하게 규정하는 문화적 힘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거의 없다.”

<sup>2</sup> 정필주, 「기념비적 대표 작가 43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 『여성신문』, 2010년 4월 3일 자,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71>

<sup>3</sup> NINE DOT ARTS, “Gender in The Art World, A Look At The Numbers,” *NINE dot ARTS* (May 2016), <https://ninedotarts.com/gender-in-the-art-world-a-look-at-the-numbers/>

<sup>4</sup> DeepL translator를 참고해 번역하였습니다. Taylor Whitten Brown, “Why Is Work by Female Artists Still Valued Less Than Work by Male Artists?,” *Artsy*(March 9, 2019), <https://www.artsy.net/article/artsy-editorial-work-female-artists-valued-work-male-artists>



## 「세계 미술사가 빼앗은 위대한 여성 미술가들의 족적과 저항... '싸우는 여성들의 미술사」<sup>5</sup>

프로페르치아 데 로시(Properzia de Rossi, 1490-1530)는 르네상스 시대 최초의 여성 조각가로서 그림과 시, 회화, 음악 등 다양한 공부를 했으나 특히 조각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여성은 있어도 조각을 하는 여성은 없었다. 조각은 거친 망치와 끌로 작업해야 하는 데다 육체적 힘이 요구 되어 남성이 독점한 분야였고, 조각가가 되려면 남자 견습생으로 복직하는 작업장에서 수년간 훈련을 해야 했는데, 정조가 중요시된 시대에 여성에게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금지되었다. 르네상스 시대 여성이 참여할 수 있었던 예술 작업은 공예, 태피스트리와 자수, 수채화 등이 전부였다. 데 로시는 과감하게 ‘금녀의 문’을 두드렸다. 조각 작업장에 들어갈 수도, 값비싼 대리석을 구할 수도 없었지만 버려진 과일 씨앗을 모아 그 위에 조각을 하며 독학으로 조각 기술을 연마했다. 그리고 마침내 산페트로니오 성당 파사드 조각 공모전에 입상하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Joseph Fleeing Potiphar’s Wife)라는 위대한 걸작을 탄생시켰다.



도판 1. Properzia de Rossi, *Joseph Fleeing Potiphar's Wife*, 1525-1526, Marble, Museo di San Petronio

<sup>5</sup> 김창만, 「[책을 만나다] 세계 미술사가 빼앗은 위대한 여성 미술가들의 족적과 저항... '싸우는 여성들의 미술사」, 『아시아 에이』, 2020년 6월 29일 자,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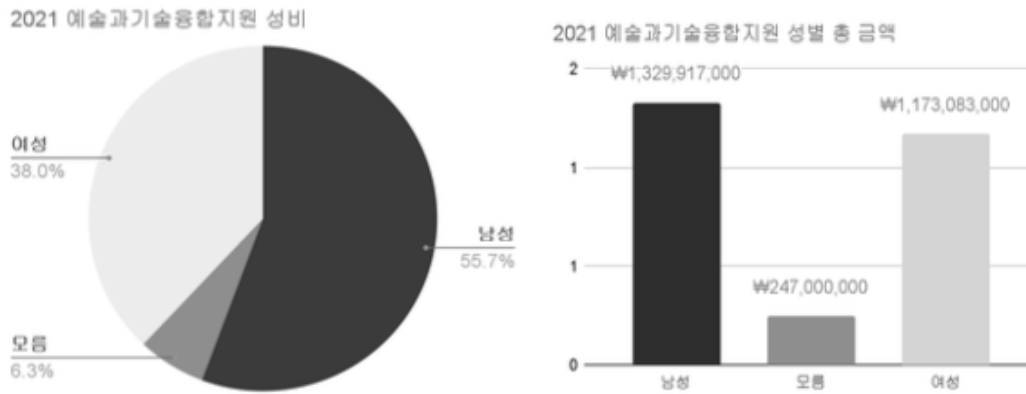


## 예술기술 융합 분야의 성비 분석

박선미

아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 선정자 성비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선정자가 팀일 경우 팀 대표의 성별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으며 성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모름'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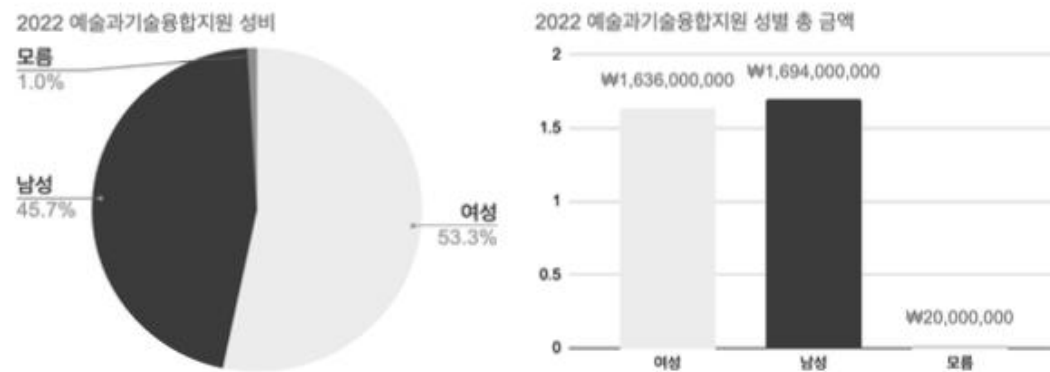
표 1. 2021년도 그래프



제작: 박선미

2021년도에는 총 79명의 선정자 중 남성은 55.7%, 여성은 38%의 비율을 차지한다(성별 미확인 6.3% 제외). 여성의 교부금액이 남성보다 약 1억 5천만 원 적었다.

표 2. 2022년도 그래프



제작: 박선미

2022년도에는 총 105명의 선정자 중 남성은 45.7%, 여성은 53.3%의 비율을 차지한다(성별 미확인 1% 제외). 이들의 교부금액을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5천만 원 더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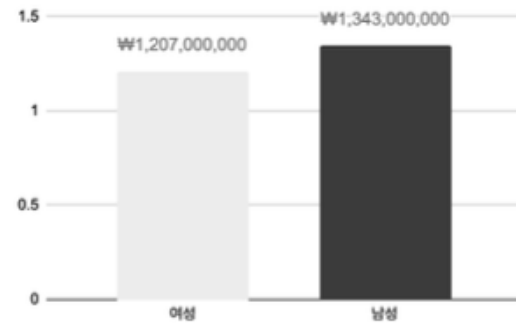


표 3. 2023년도 그래프

2023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성비



2023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성별 총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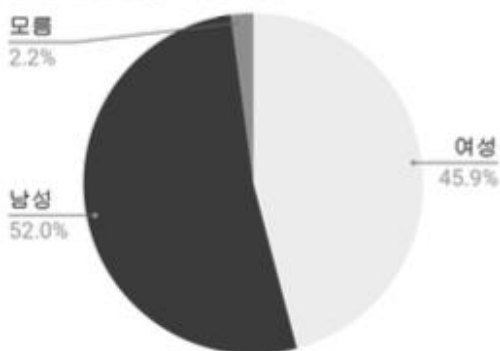


제작: 박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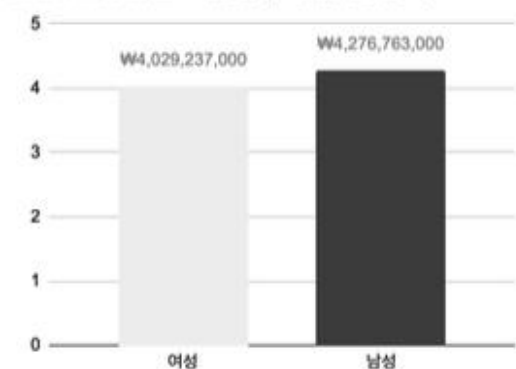
2023년도에는 총 95명의 선정자 중 남성은 55.8%, 여성은 44.2%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의 교부금액을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억 원 더 적었다.

표 4. 결론

2021-2023년도 총 성비



2021-2023년도 선정자 성별 총 금액



제작: 박선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 선정자 성비와 교부금액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정자 중 여성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45%에 그치며 이는 남성의 52%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교부금액 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총 2억 4천만 원 적은 금액을 받았다. 특히 2022년에는 여성 선정자가 남성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액은 남성에게 더 많이 지급되었다. 이는 단순한 선정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선정된 여성 작가들에게 적은 금액이 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 역사에 기록할 만한 여성 작가 리서치

박소현

### 엘리자베스 일레너 시달(Elizabeth Eleanor Siddall)

엘리자베스 일레너 시달(Elizabeth Eleanor Siddall, 1829-1862)의 작품은 남편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Dante Gabriel Rossetti, 1828-1882)의 명성에 가려졌지만, 현재는 그녀의 독창성과 기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녀의 작업을 다룬 전시회나 연구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현대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6</sup>

흔히 엘리자베스 시달로 알려진 그녀는 영국의 예술가, 예술 모델, 시인이다. 시달은 라파엘전파(Pre-Raphaelite Brotherhood)를 위해 포즈를 취한 여성 모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여성미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구체화하는 데 깊은 영향을 주었다. 월터 데버렐(Walter Deverell)과 윌리엄 홀먼 헌트(William Holman Hunt)가 시달을 그렸고, 존 에버렛 밀레이(John Everett Millais)의 유명한 작품 <오페리아>(Ophelia, 1852)의 모델로도 알려져 있다.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와의 관계 초기에, 시달은 그의 뮤즈이자 독점적인 모델이었으며, 로세티는 여성들을 묘사한 초기 작품 대부분에 그녀를 등장시켰다.<sup>7</sup>

시달은 예술가로서의 경력을 쌓았고, 1857년 라파엘전파 전시회에 참여한 유일한 여성 작가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화이트윅 매너(Wightwick Manor)와 애쉬몰린 박물관(Ashmolean Museum) 등에서 중요한 컬렉션으로 소장되어 있다.

그녀의 모습은 그들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정의하고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단순히 모델 역할을 넘어서, 여성의 예술적 표현과 권리를 위한 싸움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 한나 윌케(Hannah Wilke)

한나 윌케(Hannah Wilke, 1940-1993)는 여성의 정체성과 권리, 그리고 성에 관한 문제들을 탐구하면서 현대 미술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예술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약 30년 동안 교사로도 일했다.

사진, 퍼포먼스, 조각,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여성성, 페미니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배적인 개념을 조사하고 도전했다. 그녀는 페미니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작품에 질(Vagina) 이미지를 사용한 예술가 중 한 명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윌케는 신체를 기반으로 한 여성적 도상

<sup>6</sup> The Victorian Web, "Elizabeth Eleanor Siddall (1829-1862)," 2024년 8월 8일 접속, <https://victorianweb.org/painting/siddal/index.html>

<sup>7</sup> "Elizabeth Siddall," 위키피디아, 2024년 11월 11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Elizabeth\\_Siddall](https://en.wikipedia.org/wiki/Elizabeth_Siddall)



학의 한 유형을 만드는 작업을 했으며, 여성 생식기와 매우 유사한 추상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를 구축했다. 그녀는 이러한 형태를 미니멀리즘을 떠올리게 하는 매우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바닥이나 벽에 전시했다.

그녀는 생전에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전시에 참여했으며, 전통적인 여성성에 도전하는 작품에서 자신의 (일반적으로 매력적이라 여겨지는) 몸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페미니스트 미술사의 설명에서 현재도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sup>8</sup>

1974년에는 수많은 흑백 자화상 사진으로 구성된 위의 작품 〈S.O.S - 스타리피케이션 오브젝트 시리즈〉(S.O.S - Starification Object Series, 1974-1982)<sup>9</sup>를 시작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원주민 부족 문화에서 일부 상처를 내는 의식을 비유하지만, 사실은 성차별주의자인 프로이트가 여성 성기를 상징적인 흉터라고 주장했던 이론을 패러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상적인 여성성을 설정하고, 그 이미지를 숭배하는 미국의 문화 그리고 그 문화와 결합되어 여성성을 정복하는 제도적 악습을 노출시켰다.<sup>10</sup>

---

<sup>8</sup> GUGGENHEIM, Hannah Wilke, <https://www.guggenheim.org/artwork/artist/hannah-wilke>

<sup>9</sup> Starification은 바늘로 피부를 긁어 반응을 알아보는 '난절법'의 영어 단어인 scarification을 변형해 만든 단어이다.

<sup>10</sup> 파이돈 프레스·리베카 모릴, 『위대한 여성 예술가』, 진주 K. 가디너 옮김(을유문화사, 2020), 432.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집에 기록할 만한 여성 시각 예술가 리서치

박해솔

### 1) 최옥경

최옥경(1940-1985)은 20대와 30대 초반, 대부분이 남성인 미술계에 '끼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서 그 남성들과 동질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30대 중반부터 여성 화가들 이름 앞에 붙는 '규수' '여류'라는 호칭에 조금씩 거부감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남성 작가의 작품 같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렸던 20대와 달리, 40대엔 여성의 의식에 관련된 표상들을 시각적 용어로 표현하고 전달했다. 최옥경은 1979년 남존여비를 비판하면서 "여권신장은 헌법을 고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해결점은 우리 여성 자신에게 있습니다"(1979년 2월 '여고시대' 대담 중)라고 했다.<sup>11</sup>

### 2) 오은별

북한의 천재 화가 오은별(1980-)은 어려서부터 미술에 특출한 재능을 보였다. 2살 때 이미 수준 높은 실력의 그림을 그렸으며 1985년 전국 규모의 청소년미술전람회에서 특등을 차지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1987년 수공예 미술전람회에서는 1등을 차지했다.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한국 등지에서 오은별 개인전이 열렸다.<sup>12</sup>

### 3) 리브 스트롬퀴스트 (Liv Strömquist)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이게 그렇게 도발적으로 다가간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는 스웨덴 지하철 역사에 월경하는 소녀의 그림을 전시했다.<sup>13</sup>

<sup>11</sup> 김종목, 「규수, 여류로 불렸던 '화가' 최옥경 다시 보기」, 『경향신문』, 2021년 11월 19일자, <https://m.khan.co.kr/culture/art-architecture/article/202111191450001>

<sup>12</sup> 박광선, 「[북한화가 열전]천재 소녀화가 오은별」, 『프라임경제』, 2008년 1월 14일자,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3896> ; 문정현, [북한미술 속으로] (34)천재화가 오은별, 한경닷컴, 2007년 10월 18일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7101816977>

<sup>13</sup> 문수경, 「스웨덴 지하철, '생리하는 피겨 스케이터' 작품 전시 논란」, 『CBS노컷뉴스』, 2017년 11월 6일자, <https://m.nocutnews.co.kr/news/4872172?page=1&c1=242>; 뉴스팀, 「지하철 설치된 생리 그림 "더 이상 금기 아냐" vs "불쾌하다"」, 『세계일보』, 2017년 11월 7일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171107001411>



#### 4) 힐마 아프 클린트 (Hilma af Klint)

힐마 아프 클린트(1862-1944)는 추상 화가의 선구자다. 뛰어난 추상화를 선보였으나 여성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되었다.<sup>14</sup> 1932년부터는 생전에 공개하지 않을 그림들을 그렸다. 그는 “+x 표시가 된 작품들은 사후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전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44년 8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가 남긴 작품은 1000여 점에 가까웠다. 작품은 유언대로 20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sup>15</sup>

---

<sup>14</sup> 이는 박해솔 개인의 의견이다.

<sup>15</sup> “힐마 아프 클린트”, 위키피디아, 2024 년 11 월 11 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D%9E%90%EB%A7%88\\_%EC%95%84%ED%94%84\\_%ED%81%B4%EB%A6%B0%ED%8A%B8](https://ko.wikipedia.org/wiki/%ED%9E%90%EB%A7%88_%EC%95%84%ED%94%84_%ED%81%B4%EB%A6%B0%ED%8A%B8)



## 국내에서 개최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여성 예술감독 선임 비율

박수정

(1) **광주비엔날레: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15개 회차의 비엔날레 중, 여성 감독 선임 비율 43.3%**

(2018년 공동 큐레이팅의 경우, 11명 감독 중 5명이 여성임으로 0.5로 계산하여 합산)

- 김홍희(2006, 제6회)
- 낸시 아다자나, 와싼 알-쿠다이리, 마미 카타오카, 김선정, 캐롤 잉화 루, 알리아 스와스티카(2012, 제9회)
- 제시카 모건(2014, 제10회)
- 마리아 린드(2016, 제11회)
- 클라라 김, 정연심, 그리티아 가위윙, 크리스틴 Y. 김, 리타 곤잘레스(2018, 제12회)
- 데프네 아야스, 나타샤 진발라(2021, 제13회)
- 이숙경(2023, 제14회)

(2) **부산비엔날레: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12개 회차의 비엔날레 중, 여성 감독 선임 비율 25%**

(1998, 2000년에 개최된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 이후부터를 기준으로 함)

- 김애령(2002, 제1회)
- 크리스티나 리쿠페로(2018, 제9회)
- 김해주(2022, 제11회)

(3)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7개 회차의 트리엔날레 중, 여성 감독 선임 비율 42.8%**

- 김성원(2007, 제2회)
- 백지숙(2013, 제4회)
- 주은지(2016, 제5회)

(4)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2개 회차의 비엔날레 중, 여성 감독 선임 비율 33.3%**

- 송미숙(2000, 제1회)
- 김선정(2010, 제6회)
- 백지숙(2016, 제9회)
- 레이첼 레이크스(2023, 제12회)



(5) **창원조각비엔날레: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8개 회차의 비엔날레 중, 여성 감독 선임 비율 12.5%**  
- 현시원(2024, 제8회)

(6) **강원트리엔날레: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10개 회차의 트리엔날레 중, 여성 감독 선임 비율 0.9%**  
(강원트리엔날레는 3년 동안 강원작가전, 강원키즈트리엔날레,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총 3개의 행사를 매 년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따라서 여성 감독 회차를 1회차 당 0.33으로 계산하여 합산)  
- 한젼마(2020, 강원키즈트리엔날레)  
- 한젼마(2023, 강원키즈트리엔날레)  
- 고동연(2024,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예술감독 외 큐레토리얼팀의 제대로 된 크레딧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여성 감독이 선임될 경우 언론 보도자료에서 사용하는 '부드러운, 섬세한' 을 비롯하여 예술감독의 기획적인 역량과 고뇌를 단순하게 치환하는 여성 차별적인 표현들을 추후에 별도로 조사해 볼 필요성을 느꼈음.



##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거나, 기록되지 못한 여성 예술인 리서치

백선주

### 백파선(百婆仙, 1569-1656)

조선 출신의 도공인 백파선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으나, 일본 도자기의 발생지인 아리타 지역에서 도공들을 이끌며 도자기 생산에 임한 집단의 리더였다. 그는 아리타 도자기의 시조로 추앙 받고 있는 이삼평과 동시대 인물로, '도자기의 어머니'로 존경받으며 아리타의 대표적인 두 도공 집단 중 한 축을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1656년 96세의 일기로 사망하여 장수의 상징이기도하다. 그러나 도자기의 시조로 불리는 이삼평에 비해 연구는 물론 그 존재 자체도 오랜 세월 역사 속에 묻혀 드러나지 못했다. 백파선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닌데, 학계에서 백파선은 김해 출신 여성 도공이자 본명은 김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의 남편 심해종전 또한 김해 출신 도공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여성 사학자 노무라 이쿠요는 “백파선은 가마의 리더로서 가마를 지키고, 도자기 생산의 모든 공정을 파악하고 제품의 기획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책임을 졌으며 가족과 직인 집단 그리고 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살피며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배려하면서 바쁜 날들을 보냈을 것이다. 살아남을 확률이 낮은 전쟁 중에 피로인이 되었어도 살아남았다. 문화의 창조자가 된 백파선의 인생은 기적적이며 전쟁이 일본에 아리타 야기를 가지고 와 준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의한 피로 난민이라는 극한 상황에 있으면서 열심히 인간답게 산 그들이 아리타 야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sup>16</sup>

백파선은 상동 대감마을 출신이며, 남편과 더불어 일본에서 막사발과 향로 등을 만든 조선의 사기장으로 활약하였으며, 남편과의 사별 이후 아들 종해와 함께 백자의 제작에 전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백파선은 대감마을에서는 이미 숭배의 대상을 넘어 지역 문화의 아이콘이 되고 있었다.<sup>17</sup>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시대에, 도공이라는 존중받지 못하는 위치였음에도 백파선은 일본 근대의 태동이 된 아리타 도자기 제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일본에 사는 조선 도공들의 리더였다. 역사 속에서 비가시화되고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이었다는 점과, 아리타 지역에 있었던 큰 불로 현재로서는 사료가 될만한 그의 관련 자료는 문헌이 아닌 비석, 후등가어전공기와 만료묘태도파지 뿐이다. 따라서 그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sup>16</sup> Nomura Ikuyo, 「The Context of Korean Woman Ceramist BAEK Pa-SUN's Career In Japan」, 『여성과 역사』, 27호 (2017), 23-42.

<sup>17</sup> 노성환, 「일본의 조선 여성 도공 백파선」, 『일어일문학연구』, 제112권(2020), 291-316.



## 성별에 따른 작가들의 소득 분석<sup>ii</sup>

설고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에 한 번씩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발표한다. 2024년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유로 2021년 자료에서 여성 예술가와 남성 예술가의 수입 평균값을 비교해 보고, 2015년의 자료와 비교해서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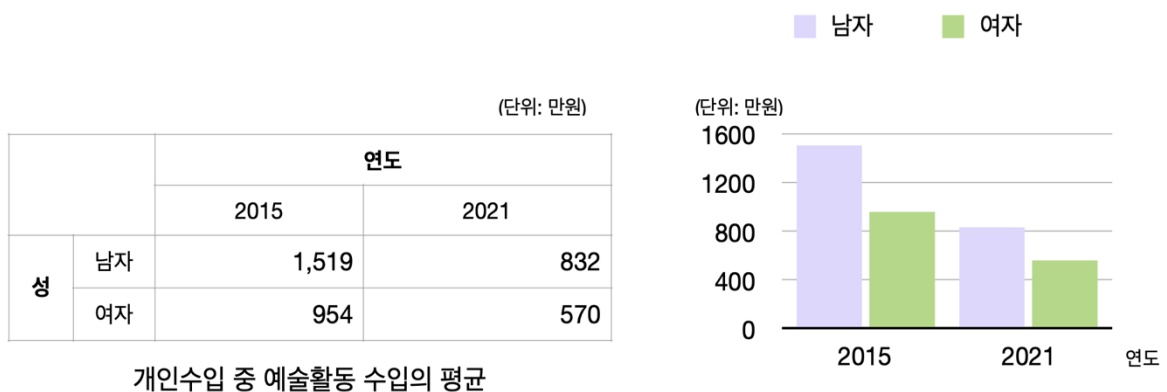
먼저 예술인의 수입은 예술인 가구 총수입과 예술인 개인 활동 수입으로 나뉘어 집계된다. 그리고 예술인 개인 활동 수입은 또다시 창작활동으로 인한 수입과 강사 및 교수 등 예술 관련 직업에 따른 소득으로 나뉜다. 성별에 따른 예술인 임금 격차를 더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가구 총수입을 배제하기로 했으며, 개인 활동 중에서도 창작 활동에 따른 수입만 비교하기로 했다.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개인 수입 중 예술 활동 수입의 평균은 695만 원, 중앙값은 30만 원이다. 이 중 남성 작가의 경우 평균소득이 832만 원, 여성 작가의 경우 570만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남성 예술인의 약 69% 수준이다. 2021년 기준 모든 산업군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약 31퍼센트로 집계되었는데, 예술계에서도 역시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남성과 여성 예술인 모두 평균 소득 수준이 2021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성별 간 임금 격차는 남성 예술인의 연 평균소득 1,519만 원, 여성 예술인의 연 평균소득이 954만 원으로 집계되며 남성의 약 63%로 나타난다.

2015년과 2021년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약 6퍼센트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남성 작가가 100만 원을 벌 때 여성 작가는 70만 원 미만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2015년, 2021년 여성-남성 예술활동 수입 비교





##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성비와 변화 양상 리서치

송윤지

1. 2024년 9월 28일 검색 기준 전체 소장품 6,158점 중  
 여성작가 32.3%: 1,989점  
 남성작가 66.6%: 4,101점  
 그룹, 기타 1.2%: 74점



여성작가 소장품 중 기증작품인 천경자 컬렉션 소장작품 93점, 김인순 컬렉션 소장작품 99점을 제외하면 자체 수집한 여성작가 소장품은 1,797점 (약 29.2%)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전시 《끝없이 갈라지는 세계의 끝에서》의 그래프 참고

2. 매체 분류 중 4.7%인 뉴 미디어 매체의 여성 작가 비율 조사 (소장시기 2000년 이후)  
 : 비교적 최근의 소장품에서 여성 작가 비율을 살펴보기 위함

총 291점의 소장품 중  
 여성작가 86명 136점  
 남성작가 85명 138점  
 그룹 및 혼성 11팀 17점

소장품의 성비와 각 수량을 5:5의 비율로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임.  
 하지만,

- ▶ 여성작가의 경우 한 작가의 작품을 4점 이상 소장한 경우는 단 4명  
 : 권아람, 전보경, 오민(각 4), 김세진(5)
- ▶ 남성작가의 경우 4점 이상 소장 작가는 9명  
 : 고영택, 심철웅, 서현석, 김해민, 박준범, 홍남기, 백남준(각 4), 임흥순(5), 유비호(6)

미술관의 소장품 선정에 작가 연구 및 아카이브의 의도가 있다고 볼 때, 한 작가의 작품을 여러 점 또는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해당 작가의 미술사적 가치에 일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최근 소장품 수집 양상은 기존 소장품 성비에 대한 자성의 결과로서 성비를 맞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에, 향후 여성작가의 전문적인 컬렉션 형성에 보다 기여하길 기대하는 바다.



## 국립현대미술관 조각·설치 소장품 작가 성비 리서치 (제작연도 기준)

안진선

국립현대미술관 조각·설치 소장품 작가 성비 리서치(제작 연도 기준)

1990-1999년 소장품 110점 중

- ▶ 여성 작가 소장품: 16점 (14.5%)
- ▶ 남성 작가 소장품: 94점 (85.4%)

### 작가명

여성 작가: 이불, 윤석남, 박상숙, 김주현, 조숙진, 안필연, 김효숙, 김정숙 등

남성 작가: 권오상, 존배, 오상욱, 박이소, 윤영석, 베르나르 브네, 엄태정 등

2000~2022년 소장품 151점 중

- ▶ 여성 작가 소장품: 20점 (13.2%)
- ▶ 남성 작가 소장품: 131점 (86.7%)

### 작가명

여성 작가: 이주요, 홍승혜, 김민애, 양혜규, 이수경, 정서영 등

남성 작가: 최우람, 최정화, 권오상, 안규철, 최만린, 이형구 등

남성 작가의 작품은 연속적으로 소장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 작가의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소장 비율이 낮고, 1인당 소장 작품 수가 적다.

2000년대 여성 작가의 소장품 비율이 1990년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sup>18</sup>

---

<sup>18</sup>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https://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List.do> 참고



## 한국의 여성 중견, 원로작가 리서치

우울로

이신자(1930-)는 우리나라에 섬유예술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등장하기 이전, 다양한 섬유 매체를 발굴하고 독자적인 표현 기법을 적용한 작품 활동을 통해 한국 섬유예술계의 이정표를 세웠다. 실과 천을 다루는 일이 오랜 시간 여성의 몫이자 가사 노동으로 치부되거나 인식되는 우리 사회의 경계를 벗어나고 섬유예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조형적 실험을 하며 '실의 예술'로서 섬유 예술의 폭과 깊이를 확장했다.”<sup>19</sup>

### · 태피스트리

밀포대, 방충망, 벽지, 종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재료와 소재가 활용되었다. 그중에서도 작가가 평생 천착해 온 태피스트리는 낱실(경사, 세로줄)을 캔버스에 두고 씨실(위사, 가로줄)이 붓이 되어 씨실의 색상만으로 표면에 무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낱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난 일들이라면, 씨실은 작가의 생각과 상상력에 따라 불연속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 · 작업 방식

작가는 단순히 천을 메꾸어가는 일반적인 방식과 의미를 벗어나, 짜고, 감고, 뽑고, 엮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로 그림을 그려'나갔다. 60년대 초까지 주를 이룬 전통 자수 작품들은 대부분 정적이고 한국적인 소재를 배치하였다. 반면 이신자는 내면화된 자연의 정서와 정경들을 대담하게 단순화하여 짜임새 있는 구도로 선보였다. 천 위에 밑그림(하도)을 그리고 크레파스나 안료를 칠하거나 아플리케(appliqué)하여, 자수와 염색을 하나의 화면에 담았다.<sup>20</sup> 이와 같은 조형 실험은 캔버스의 바탕을 새롭게 바꾸었다. 70년대 초기에는 동대문, 남대문 구제품 시장에서 독특한 재질의 털실 스웨터를 구매하여 풀어 쓰거나, 침구용 실을 사서 물들이고 합사해 사용하기도 했다.<sup>21</sup> 90년대부터는 금속 프레임을 배치해 3차원 세계를 구성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제공했다.<sup>22</sup>

<sup>19</sup> 국립현대미술관, 『이신자, 실로 그리다』, 전시 팸플릿(서울:국립현대미술관, 2023), 3.

<sup>20</sup> 국립현대미술관, 『이신자, 실로 그리다』, 전시 팸플릿, 6.

<sup>21</sup> 국립현대미술관, 『이신자, 실로 그리다』, 전시 팸플릿, 7.

<sup>22</sup> 국립현대미술관, 『이신자, 실로 그리다』, 전시 팸플릿, 10.



#### · 주제

작가는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과 기억을 그려냈다. 울진 앞바다에 반사된 일출과 석양의 강렬한 빛을 적색으로, 산과 나무의 형상을 노랑과 갈색 계열의 난색으로 표현했다. 또한 〈기구 I〉(1985), 〈메아리〉(1985)와 같이 붉은색과 검은색의 대비로 80년대 초 사별로 인한 상실과 절망, 생명에 대한 외경, 부활의 의지를 담아냈다.<sup>23</sup> 특히 〈산의 정기〉 시리즈(1990년대)에서는, "어린 시절 울진 앞바다에서 본 바다 풍경과 아버지 손을 잡고 오르던 산의 정기엔 파도 소리, 빛, 추억, 사랑, 이별, 이 모든 것이 스며있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평생을 지배해 온 주제인 자연의 영원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이신자의 '자연'은 작가의 모든 것이 스며든 모태 공간이자 삶을 아우르는 가치를 의미한다.<sup>24</sup>

본문출처: 『이신자, 실로 그리다』, 국립현대미술관, 2023.

본 글은 도록의 텍스트를 편집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문 관련자료 및 작품 이미지 링크:



◀ 국립현대미술관 《이신자: 실로 그리다》 전시 소개 웹페이지

---

<sup>23</sup> 국립현대미술관, 『이신자, 실로 그리다』, 전시 팸플릿, 8.

<sup>24</sup> 국립현대미술관, 『이신자, 실로 그리다』, 전시 팸플릿, 10.



## 역사에 기록할 만한 여성 작가 리서치<sup>25</sup>

원나래

### 1. 윤석남 (1939-)

윤석남(1939-)은 한국을 대표하는 페미니스트 미술가로, 여성의 삶과 억압된 역사적 경험을 다루는 작업을 통해 주목받았다. 40세에 늦은 나이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으나, 여성의 목소리를 강렬하게 표현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 윤석남의 대표작 〈어머니〉 시리즈는 가부장제 속에서 고통과 희생을 감내했던 어머니 세대를 기리는 작업으로,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치미술과 회화 작업이 돋보인다. 이후에도 여성주의, 사회정의를 주제로 한 설치미술과 회화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초대된 첫 여성 작가로, 한국 여성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그녀의 작업은 가부장적 억압, 여성의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며, 특히 여성의 일상적인 삶에 내재한 힘과 저항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 2. 박영숙 (1941-)

박영숙(1941-)은 한국 최초의 여성 사진작가 중 한 명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제를 다루며 사진예술의 지평을 넓혔다. 1970년대 중반부터 사진 작업을 시작한 그녀는, 특히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여성과 소외된 이들의 삶을 담아내며 주목받았다. 대표작 〈지워지지 않는 흔적〉 시리즈는 일상에서 억압된 여성들의 모습을 포착해, 가부장제와 여성 억압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았다. 그녀는 또한 환경과 사회적 불평등, 노동자의 삶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사진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박영숙은 디지털 사진으로의 전환에도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며, 사진 매체의 한계를 넘어서 회화적 요소와 결합하는 실험적인 작업을 시도했다.

### 3. 정정엽 (1962-)

정정엽(1962-)은 한국의 페미니즘 작가로, 여성의 몸, 노동, 그리고 생명에 대한 주제를 다루며 사회적 이슈를 예술로 풀어낸다. 1990년대 초부터 여성주의 미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국 여성미술의 중요한 인물

---

<sup>25</sup> 김영옥, 『이미지 페미니즘, 젠더정치학으로 읽는 시각예술』(미디어 일다, 2018) 참조



로 자리매김했다. 정정엽의 대표작 〈모유〉 시리즈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생명과 연관된 자연적 행위로 그려 내며, 여성의 몸을 축복과 존엄의 대상으로 재해석한다. 그녀는 여성의 신체와 노동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경험을 시각화하며, 나아가 여성의 몸이 가진 생명력과 저항의 힘을 강조한다. 또한 정정엽은 페미니즘 미술과 더불어 생태적 관점에서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한 작업을 이어오며, 환경 문제와 여성의 역할을 결합한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 4. 정은영 (1974-)

정은영(1974-)은 한국의 페미니즘 작가로, 여성성과 젠더 문제를 주제로 다층적인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전통 여성국극을 주요 연구 및 창작 소재로 삼아, 여성의 목소리가 억압된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고 재조명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2008년부터 시작한 〈여성국극 프로젝트〉는 여성 배우들이 남성 역할을 연기 하던 여성국극을 탐구하며, 젠더의 경계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정은영의 작업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역사적 기록과 공연예술, 영상, 설치미술 등을 결합하여, 권력 구조 속에서 억압된 여성의 서사를 복원하고 새로운 형태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녀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 억압과 저항 사이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젠더와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이끌어낸다.



## 주요 미술관 역대 관장 조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윤여진

미술관 관장은 미술관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 기관과의 교류, 전시 스타일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작품 수집 및 보존, 연구, 대중 교육 등 미술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관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 미술관을 이끌어야 한다.

표 1. 국립현대미술관 역대 미술관 관장 및 임기<sup>26</sup>

| 구분  | 성명                | 임기(기간) <sup>27</sup>          |
|-----|-------------------|-------------------------------|
| 1대  | 김임룡 (1932.10.15.) | 1969.9. - 1970.9. (1년)        |
| 2대  | 조성길 (1920.3.20.)  | 1970.9. - 1971.7. (10개월)      |
| 3대  | 박상열 (1923.1.24.)  | 1971.8. - 1972.2. (7개월)       |
| 4대  | 장상규 (1928.9.10.)  | 1972.2. - 1973.3.(1년 1개월)     |
| 5대  | 박호준 (1930.12.25.) | 1973.3. - 1973.12. (9개월)      |
| 6대  | 손석주 (1924.9.20.)  | 1973.12. - 1977.12.(4년 1개월)   |
| 7대  | 윤치오 (1930.2.1.)   | 1977.12. - 1980.10. (3년 10개월) |
| 8대  | 윤탁 (1933.3.3.)    | 1980.10. - 1981.7. (10개월)     |
| 9대  | 이경성 (1919.2.17.)  | 1981.8. - 1983.10. (2년 3개월)   |
| 10대 | 김세중 (1928.7.24)   | 1983.11. - 1986.6. (2년 8개월)   |
| 11대 | 이경성 (1919.2.17.)  | 1986.7. - 1992.5. (5년 10개월)   |
| 12대 | 임영방 (1929.10.1.)  | 1992.5. - 1997.7. (5년 2개월)    |
| 13대 | 최만린 (1935.10.3.)  | 1997.7. - 1999.7. (2년)        |
| 14대 | 오광수 (1938.11.20.) | 1999.9. - 2003.8. (4년)        |
| 15대 | 김윤수 (1936.2.11.)  | 2003.9. - 2006.9. (3년)        |
| 16대 | 김윤수 (1936.2.11.)  | 2006.9. - 2008.11. (2년 2개월)   |

<sup>26</sup> 국립현대미술관. 「2016 미술관 연보」:10.;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윤범모(동국대 석좌교수)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1월 31일자,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94](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94);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윤범모 씨 재임명」,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2월 25일자,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402](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402); 「국립현대미술관장에 김성희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9월 14일자,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496](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496)

<sup>27</sup> 1대부터 19대 관장 임기 기한 표기는 다음 자료를 그대로 따랐다. 국립현대미술관. 「2016 미술관 연보」:10.



|     |                                |                             |
|-----|--------------------------------|-----------------------------|
| 17대 | 배순훈 (1943.4.30.)               | 2009.2. - 2011.10. (2년 9개월) |
| 18대 | 정형민 (1952.6.15.)               | 2012.1. - 2015.1. (3년)      |
| 19대 |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스페인) (1966.4.23.) | 2015.12. - 2018.12. (3년)    |
| 20대 | 윤범모 (1951.7.5.)                | 2019.2. - 2022.1. (3년)      |
| 21대 | 윤범모 (1951.7.5.)                | 2022.2. - 2023.4. (1년 2개월)  |
| 22대 | 김성희 (1958.1.6.)                | 2023.09. -                  |

표 2. 서울시립미술관 역대 미술관 관장 및 임기<sup>28</sup>

| 구분 | 성명                | 임기(기간)                      |
|----|-------------------|-----------------------------|
| 1대 | 유준상 (1932.10.15.) | 1999.6. - 2002.12. (3년 6개월) |
| 2대 | 하중현 (1920.3.20.)  | 2003.1. - 2007.1. (4년)      |
| 3대 | 유희영 (1923.1.24.)  | 2007.1. - 2012.1. (5년)      |
| 4대 | 김홍희 (1928.9.10.)  | 2012.1. - 2017.2. (5년)      |
| 5대 | 최효준 (1930.12.25.) | 2017. - 2019.3. (2년)        |
| 6대 | 백지숙 (1924.9.20.)  | 2019.3. - 2023.3. (4년)      |
| 7대 | 최은주 (1930.2.1.)   | 2023.3. -                   |

한국 미술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국공립 미술관 두 곳의 역대 관장을 리서치해 보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2대에 걸쳐 2명이 여성이었으며, 서울시립미술관은 7대에 걸쳐 3명이 여성 관장이었다. 두 기관 모두 여성 관장이 선임된 시기는 2012년 이후이다.

한편,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미술관직 종사자들과 예비 종사자들(185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조건 실태 관련 설문조사에서 남녀의 성비는 여성 80.5%, 남성 19.5%로 나타났다.<sup>29</sup> 해당 기사에서는 “학예직이 이른바 ‘여초 직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초 직군보다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논문은 여성의 노동이 남성 노동에 비해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라고 말한다.<sup>30</sup>

미술관이 정체성을 다지고 비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만큼 선정 과정에는 다양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성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단초로 미술관 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시선을 넓혀보고자 한다.

<sup>28</sup> 서울시립미술관. (2024). 미술관 소개, 연혁. <https://sema.seoul.go.kr/kr/sema/landing>

<sup>29</sup> 이별님, 「[단독/노동과 인권] “고학력 큐레이터, 月200이하 계약직입니다”」, 『뉴스포스트』, 2019년 3월 21일자, <https://www.newspost.kr>

<sup>30</sup> 이별님, 「[단독/노동과 인권] “고학력 큐레이터, 月200이하 계약직입니다”」



## 만 34세 이후 여성 작가들 (진입 이후 지속)<sup>31</sup>

이시마

### 20·30대 여성 예술인의 경제 활동 현황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전체 예술인 평균보다 전업 예술인 비율이 낮고, 작품 발표 횟수도 적으며, 예술 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은 더 많이 하지만 계약 건수와 계약 체결 금액은 타 집단에 비해 낮을 것으로 추정됨. 전반적으로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개인 수입이 전체 예술인 평균(1,281만 원)보다 낮을 뿐 아니라, 같은 여성 예술인 내에서도 60세 이상 연령대 집단 다음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됨. 2017년 기준 여성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평균 개인 소득(920만 원)은 남성 예술인 평균(1,505만 원)의 60%에 불과한 가운데, 연령대별 예술 활동 평균 수입은 40대(1,754만 원), 50대(1,432만 원), 30대 이하(1,246만 원), 60대 이상(860만 원) 순으로 나타남.

### 20·30대 여성 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및 지속

- 2016~2019.7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 수혜 현황
- 예술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건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17% 높고,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신청(32.2%) 및 선정(30.3%)되고, 그 뒤로 20·30대(신청 31.7%, 선정 28.0%), 50대(신청 22.9%, 선정 24.4%), 60대 이상(신청 13.2%, 선정 17.3%) 순으로 나타남.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선정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반면 창작 산실이나 예술작품 지원 등 어느 정도 경력이 필요하고 지원금액도 높은 지원사업 영역에서는 남성 선정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 예술 경력 단절 경험은 여성 예술인(25.6%)이 남성 예술인(22.9%)보다 약간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34.7%)에서 가장 높았음.
- 예술 경력 단절 이유로 남성 예술인은 예술 활동 수입 부족을 압도적인 비율(77%)로 꼽았지만, 여성 예술인은 예술 활동 수입 부족(56%)외에 출산/육아(17%)도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대 여성 예술인들은 예술계 진입 과정에서 자신의 자질/능력 부족뿐 아니라 인맥·학맥 부재, 경제적 여유 부족, 진입 기회 부족, 정보 부족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예술계 진입 과정에서 교수와 심사자, 선배 예술인 등 위계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및 인권침해 상황에 직면하게 됨.

<sup>31</sup>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30대 여성 예술인이 겪는 예술계 진입의 구조적 제약과 성평등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라운드테이블>



## 시기별 주요 미술관 개인전 성비

임유정

표1. 2013년 - 2024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인전 성비

\*MMCA 홈페이지의 전시- 과거전시- 서울 - 전시 선택 후 개인의 이름이 전면으로 나온 것 기준<sup>32</sup>

| 전시 시작날짜     | 년도   | 작가        | 전시제목                        | 성별   | 국적 | 비고                |
|-------------|------|-----------|-----------------------------|------|----|-------------------|
| 1 13.11.12  | 2013 | 최우람       | 현장제작 설치 프로젝트: 최우람           | 남성   | 한국 |                   |
| 2 13.11.12  |      | 서도호       | 한진해운 박스 프로젝트: 서도호           | 남성   | 한국 |                   |
| 3 13.11.12  |      | 장영혜중공업    | 현장제작설치 프로젝트: 장영혜중공업         | 컬렉티브 | 복수 | 구성원 1명의 성별 알 수 없음 |
| 4 14.02.11  | 2014 | 구분창       | 구분창 아카이브: 18개의 전시           | 남성   | 한국 |                   |
| 5 14.04.01  |      | 쉬린 네사트    | 쉬린 네사트전                     | 여성   | 외국 |                   |
| 6 14.04.19  |      | 에스퍼 유스트   | 에스퍼 유스트: 욕망의 풍경             | 남성   | 외국 |                   |
| 7 14.07.10  |      | 백남준       | 나의 예술적 고향: 라인란트의 백남준        | 남성   | 외국 |                   |
| 8 14.09.30  |      | 이불        | 현대차 시리즈 2014:이불             | 여성   | 한국 |                   |
| 9 14.11.04  |      | 레안드로 에를리치 | 한진해운 박스 프로젝트 2014: 레안드로 C   | 남성   | 외국 |                   |
| 10 15.03.31 |      | 권진규       | 권진규 아카이브전: 작은 트락을 거닐다       | 남성   | 한국 |                   |
| 11 15.09.15 |      | 안규철       | 현대차 시리즈 2015: 안규철 - 안보이는 사  | 남성   | 한국 |                   |
| 12 15.10.27 | 2015 | 서세욱       | 기증작품 특별전 <서세욱> 전            | 남성   | 한국 |                   |
| 13 15.11.10 |      | 율리우스 포프   | 대한항공 박스 프로젝트 2015: 율리우스 P   | 남성   | 외국 |                   |
| 14 15.11.11 |      | 조덕현       | <님의 정원: 조덕현 아카이브>전          | 남성   | 한국 |                   |
| 15 15.11.25 |      | 필립 가렐     | 필립 가렐 - 찬란한 절망              | 남성   | 외국 |                   |
| 16 15.12.01 |      | 윌리엄 켄트리지  | 윌리엄 켄트리지                    | 남성   | 외국 |                   |
| 17 16.04.13 |      | 질 바비에     | 에코 시스템 : 질 바비에              | 남성   | 외국 |                   |
| 18 16.07.27 | 2016 | 김수자       | 현대차 시리즈 2016: 김수자-마음의 기하학   | 여성   | 한국 |                   |
| 19 16.10.18 |      | 양지양 그룹    | 대한항공 박스 프로젝트 2016 <양지양 그    | 컬렉티브 | 외국 | 전원 남성 컬렉티브        |
| 20 17.07.05 | 2017 | 크지슈토프 보디츠 | 크지슈토프 보디츠코:기구, 기념비, 프로젝     | 남성   | 외국 |                   |
| 21 17.11.08 |      | 요나스 메카스   | 요나스 메카스: 찰나, 힐긋, 돌아보다       | 남성   | 외국 |                   |
| 22 17.11.30 |      | 임홍순       | 현대차시리즈 2017 : 임홍순 <우리를 갈라   | 남성   | 한국 |                   |
| 23 18.05.11 | 2018 | 아크람 자타리   | 아크람 자타리: 사진에 저항하다           | 남성   | 외국 |                   |
| 24 18.08.04 |      | 윤형근       | 윤형근                         | 남성   | 한국 |                   |
| 25 18.09.05 |      | 최정화       | mmca 현대차 시리즈 2018: 최정화 - 꽃, | 남성   | 한국 |                   |
| 26 18.10.27 |      | 하룬 파로키    | 하룬 파로키 -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 남성   | 외국 |                   |
| 27 18.12.22 |      | 마르셀 뒤샹    | 마르셀 뒤샹                      | 남성   | 외국 |                   |
| 28 19.04.12 |      | 아스거 온     | 대안적 언어 - 아스거 온, 사회운동가로서     | 남성   | 외국 |                   |
| 29 19.04.27 |      | 안톤 비도클    | 안톤 비도클: 모두를 위한 불멸           | 남성   | 외국 |                   |
| 30 19.05.18 |      | 박서보       | 박서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 남성   | 한국 |                   |
| 31 19.08.31 | 2019 | 김순기       | 김순기 : 게으른 구름                | 남성   | 한국 |                   |
| 32 19.10.26 |      | 박찬경       | mmca 현대차 시리즈 2019: 박찬경- 모임  | 남성   | 한국 |                   |
| 33 20.09.29 |      | 양혜규       | mmca 현대차 시리즈 2020: 양혜규 - o2 | 여성   | 한국 |                   |
| 34 20.11.25 |      | 이승택       | 이승택 - 거꾸로, 비미술              | 남성   | 한국 |                   |
| 35 21.04.30 | 2020 | 황재형       | 황재형: 회천                     | 남성   | 한국 |                   |
| 36 21.05.22 |      | 정상화       | 정상화                         | 남성   | 한국 |                   |
| 37 21.09.03 |      | 문경원 & 전준호 | mmca 현대차 시리즈 2021: 문경원 & 전  | 컬렉티브 | 한국 | 혼성 컬렉티브           |
| 38 21.12.11 | 2021 | 아이 웨이웨이   | 아이 웨이웨이                     | 남성   | 외국 |                   |
| 39 22.04.29 |      | 히토 슈타이얼   | 히토 슈타이얼 - 데이터의 바다           | 여성   | 외국 |                   |
| 40 22.08.12 |      | 이중섭       | mmca 이견희 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 남성   | 한국 |                   |
| 41 22.09.09 |      | 최우람       | mmca 현대차 시리즈 2022: 최우람-작은   | 남성   | 한국 |                   |
| 42 23.02.03 | 2022 | 페터 바이벨    | 페터 바이벨: 인지 행위로서의 예술         | 남성   | 외국 |                   |
| 43 23.08.25 |      | 김구림       | 김구림                         | 남성   | 한국 |                   |
| 44 23.09.06 |      | 정연두       | mmca 현대차 시리즈 2023: 정연두 -백년  | 남성   | 한국 |                   |
| 45 24.04.05 | 2023 | 정영선       | 정영선 : 이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 여성   | 한국 |                   |
| 46 24.11.01 |      | 이강소       | 이강소 : 플레수면시                 | 남성   | 한국 |                   |

제작: 임유정

<sup>32</sup> 국립현대미술관, 과거전시, 2024년 11월 18일 접속, <https://www.mmca.go.kr/exhibitions/pastProgressList.do>



### 총 46건의 전시 중

1. 여성: 6건 13.04%
2. 남성: 38건 82.60%
3. 기타: 2건 4.34%

### #미술계\_내\_성폭력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향후 커리어 비교

#### 가해자<sup>33</sup>

1. 큐레이터 J -소식 찾을 수 없음
2. 큐레이터 C-소식 찾을 수 없음
3. 큐레이터 H-소식 찾을 수 없음
4. 평론가 L-소식 찾을 수 없음
5. 작가 J -활발히 활동 중
6. 작가 L- 활발히 활동 중
7. 작가 Y-소식 찾을 수 없음
8. 작가 K- 활발히 활동 중
9. 작가 B- 활발히 활동 중
10. 작가 B2-소식 찾을 수 없음
11. 작가 K- 해당 사건을 알지 못함
12. 작가 M - 활발히 활동 중
13. 작가 K2 - 해당 사건을 알지 못함
14. 공간 대표 S - 몇 년 전 지방으로 내려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 들음

#### 피해자

대부분이 익명으로 발언하였고, 본인의 이름으로 발언했다 하더라도 SNS를 삭제한 경우가 많아 파악이 어려움

---

<sup>33</sup> 미술계성폭력, 페미위키, 2024년 11월 18일 접속, [https://femi-wiki.com/w/%EB%AF%B8%EC%88%A0%EA%B3%84\\_%EC%84%B1%ED%8F%AD%EB%A0%A5](https://femi-wiki.com/w/%EB%AF%B8%EC%88%A0%EA%B3%84_%EC%84%B1%ED%8F%AD%EB%A0%A5)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 우만위키, 2024년 11월 18일 접속, [https://tcatmon.com/wiki/2016%EB%85%84\\_%EB%AC%B8%ED%99%94%EA%B3%84\\_%EC%84%B1%EC%B6%94%EB%AC%B8\\_%ED%8F%AD%EB%A1%9C\\_%EC%82%AC%EA%B1%B4#google\\_vignette](https://tcatmon.com/wiki/2016%EB%85%84_%EB%AC%B8%ED%99%94%EA%B3%84_%EC%84%B1%EC%B6%94%EB%AC%B8_%ED%8F%AD%EB%A1%9C_%EC%82%AC%EA%B1%B4#google_vignette)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2024, 2023 단체전 중심 여자 남자 참여 작가 비율 리서치

정원

국립현대미술관: 여 36%, 남 50%, 단체 11%, 알 수 없음 3%

서울시립미술관: 여 35%, 남 41%, 단체 16%, 알 수 없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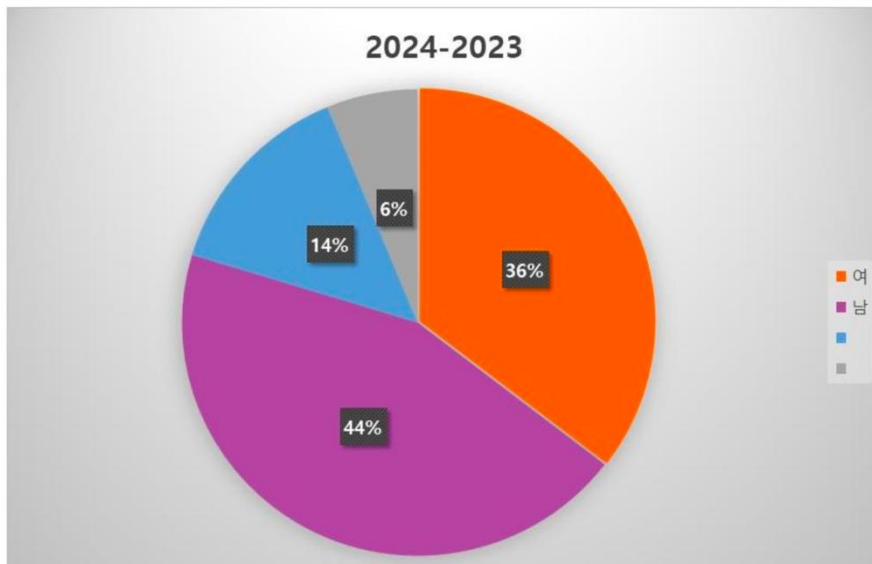
총 비율: 여 36%, 남 44%, 단체 14%, 알 수 없음 6%

표 1, 표 2. 미술관 비교



제작: 정원

표 3. 전체 비교



제작: 정원

- 평균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40% 넘지 못함.
- 전시의 주제 혹은 다루는 시대에 따라 여자와 남자의 편차가 큼.
- 특히 1980년대 이전의 작가를 다루는 전시에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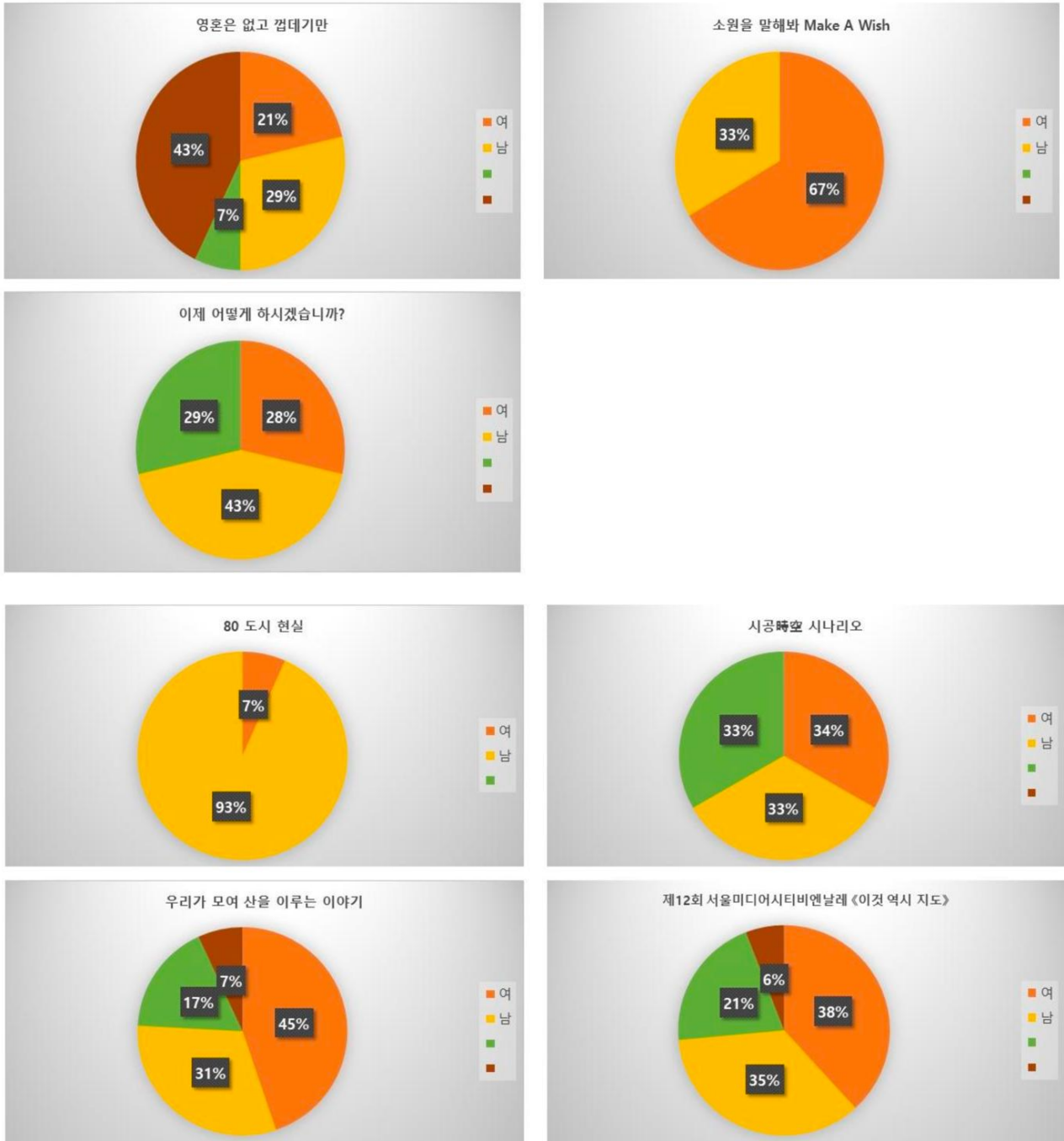
표 4. 국립현대미술관 세부 통계 리서치



제작: 정원



표 5. 서울시립미술관 세부 통계 리서치



제작: 정원

표 제작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음.



## 여성 신진작가들이 중진작가로 자리잡기 어려운 이유

최희정

1. 교육과 실제 활동의 불일치: 미술 전공자(학사 기준) 중 여성의 비율은 64.45%로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여성 작가는 33%에 불과.<sup>34</sup> 학문적으로는 여성이 많지만, 이후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장벽이 존재.
  - A. 전국 대학교의 디자인(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 디자인), 응용예술(공예, 사진, 만화, 영상), 미술(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전공자 중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64.45%다(‘교육인적자원 교육통계연보 대학교 계열별 학생 수’ 2008년). 그러나 실제로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작가의 비율은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3%에 불과하다. 정리하자면 미술대학에서의 남녀 비율이 대략 3:7이라면, 실제 전업미술가로 살아남는 남녀 비율은 대략 7:3으로 역전되는 성별 비율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sup>35</sup>
2. 인맥 네트워크와 상업적 요소: 작가의 성공에 창의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인맥과 상업적 지원. 이와 관련하여 남성 중심의 네트워크가 미술계에서 큰 역할을 하며, 여성 작가들은 이러한 구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sup>36</sup>
3. 2010 국립현대 젊은모색 삼십(三十)전: 총 참여 작가 중 여성 작가의 비율 7%  
총 43명 중 여성작가 단 3명(이수경, 정서영, 김정욱)

<sup>34</sup> 정필주, 「기념비적 대표 작가 43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 『여성신문』, 2010년 4월 3일 자,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71>

<sup>35</sup> 정필주, 「기념비적 대표 작가 43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 『여성신문』.

<sup>36</sup> 오홍석, 「‘그들만의 리그’ 미술계에서 젊은 작가들이 살아남는 법」, 『WOMAN DONGA』, 2022년 3월 22일자, <https://woman.donga.com/3/all/12/3251848/1>



## 활동을 중단한 여성 작가에 관한 리서치\_유디트 레이스터(Judith Leyster, 1606-1660)

하다원

여성, 엄마, 예술가라는 세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이들은 드물다. 일을 위해 결혼을 늦추거나(비혼이거나) 아이를 갖지 않거나 혹은 아이나 가정 때문에 활동을 중단한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비단 예술가만이 아니다. 현재도 대다수의 여성들이 육아로 휴직이나 퇴직을 하는 게 씁쓸한 현실이다.<sup>37</sup> 국내에서 활동을 중단한 여성 작가를 찾기 위해 문헌과 기사를 검색했다. 그러나 활동을 중단했다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중단했다는 기준이 모호했으며,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도 미미했기 때문이다.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시 《절필시대: 정찬영, 백윤문, 정종여, 임군홍, 이규상, 정규》는 활동을 중단한 근대 작가들을 조명하고 있었으나, 여섯 명의 작가 중 여성 작가는 정찬영뿐이었다. 이에 본인은 작업 활동에 대해 비교적 명료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던 네덜란드의 여성 작가 유디트 레이스터에 관해 살펴보게 되었다.

작가이자 시인인 야콥 카츠(Jacob Cats, 1577-1660)는 그의 책에서 당시 결혼한 남성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고 결혼한 여성은 집, 특히 부엌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갖추어야 할 미덕에는 집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중상층 여성들을 그린 풍속화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론 당시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볼 수 있다. 남편과 사별하거나 나이 들어서까지 독신인 여인들은 경제활동을 해야 했다. 그러나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은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는 것이 최우선의 미덕이었다.<sup>38</sup> 이러한 사회의 관습은 결혼한 여성에게 암묵적인 강요로 작용해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되었다. 이는 400년 후 대한민국으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관습처럼 느껴진다.

100년 넘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유디트 레이스터의 그림은 프란스 할스(Frans Hals, 1585-1666)의 작품으로 여겨져 왔다. 1630년에 그려진 〈흥청거리는 연인〉(Carousing Couple)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여인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잔을 기울이며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할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레이스터의 작품이었다. 1893년, 작품에 있던 서명 'FH' 가 사실은 'JL'을 교묘하게 바꾼 것이었음을 미술사학자 호프스테데 데 흐로트(Cornelis Hofstede de Groot, 1863-1930)가 밝혀낸 것이다. 그는 루브르 박물관이 프란스 할스의 작품으로 산 그림에서 레이스터의 모노그램 'JL\*' 을 확인했고 이 작품을 레이스터의 그림으로 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른 남성화가의 이름으로 알려진 여섯 작품이 실제 레이스터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sup>39</sup> 그러나 할스의 수작이라고 칭송받던 그림이 무명 여성 화가인 레이스터의 작

<sup>37</sup> 『누가 선택을 강요하는가?』 출판사 서평, 시,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08932941>

<sup>38</sup> 김소희, 「서양미술사담론에서 여성화가의 소외, 유디트 레이스터(Judith Leyster, 1609-1660)를 중심으로」,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제40집 (2014), 193.

<sup>39</sup> 김소희, 197.



품으로 밝혀지자, 가격이 떨어졌다. 그림이 변한 게 아닌데도 말이다.<sup>40</sup> 레이스터의 작품에는 항상 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200년 동안 미술사에서 잊혔다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생전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여성 마스터 화가로 활발히 활동을 펼쳤던 레이스터는 1636년 풍속 화가인 얀 민세 몰레나르(Jan Miense Molenaer, 1610-1668)와 결혼한 후, 작품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레이스터는 결혼 후 미술작품을 거래하는 사업에서뿐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는 등 사업수완이 꽤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 전념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남편인 몰레나르는 화가로서의 경력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당시 네덜란드 사회가 결혼한 여성에게 부과한 책임과 의무가 레이스터에게 암묵적인 강요로 작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레이스터는 마스터 화가로서 공식적인 작업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41</sup>

---

<sup>40</sup> 우정아,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240] '경력 단절' 女性 화가의 결작, 『조선일보』, 2018년 9월 11일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0/2018091003313.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0/2018091003313.html)

<sup>41</sup> 김소희, 194.



## 참고문헌

---

i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거나, 기록되지 못한 여성 예술인 리서치, 백선주

김선미, 「'백파선(百婆仙)' 연구: '여성 도공'으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40집, 2호 (2023), 69-96.

노성환, 「일본 사가현 아리타의 조선도공에 관한 일고찰」, 『일어일문학』, 제42권 (2009), 303-323.

노성환, 「일본의 조선 여성 도공 백파선」, 『일어일문학연구』, 제112권 (2020), 291-316.

ii 성별에 따른 작가들의 소득 분석, 설고은

문화체육관광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 2016.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 2022.

김혜인, 「양성평등문화정책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성 격차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32집 3호 (2018), 33-58.



아르코미술관 × 온큐레이팅 협력 주제기획전

《인투 더 리듬: 스코어로부터 접촉지대로》

아르코미술관 2024. 9. 26 (목) - 11. 3 (일)

엘리자베스 에베를레 × 루이즈더우먼

리서치 워크숍 <간격을 조심하세요!>

참여자

김소정, 머피엄, 박선미, 박소현, 박해솔, 박수정, 백선주,

설고은, 송윤지, 안진선, 우울로, 원나래, 윤여진, 이시마,

임유정, 정원, 최희정, 하다원

2024 ARKO Art Center × OnCurating International Collaborative Exhibition

*Into the Rhythm: From Score to Contact Zone*

ARKO Art Center 2024. 9. 26 (Thu) - 11. 3 (Sun)

Elisabeth Eberle × Louise the Women

Research Workshop <MIND THE GAP!>

Participants

So Jeong Kim, Murphy Yum, Sunmi Park, Sohyun Park,

Soojeong Park, Haesol Bak, Sunjoo Baik, Gwen Seol, Yunji

Song, Jinseon Ahn, Volo, Narae Won, Yeojin Yun, leesima,

Yujung Lim, Jeong One, Heejeung Choi, Dawon Ha